[안녕하세요, 12년 개근상 대표수상자 박서영입니다]

초등학교 가족신문을 만들 때부터 부모님께서는 가훈을 ‘신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집 가훈은 아버지 회사의 사훈과 같습니다.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믿음을 주고자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쉬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라며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가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행동으로 빛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기말고사 최종 점수를 확인하는데 수학 점수가 가채점했던 점수보다 20점이 올라있었습니다. 평소 점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수학이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커닝 한 것도 아닌데"라며 순간 욕심이 생겼지만, 도저히 안 되어서 종이 지기 전에 마음을 다잡고 교무실에 올라가서 점수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수로 제 답지에 서술형 점수를 만점으로 기재하신 선생님은 고맙다고 하셨고 그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 고백으로 졸업식 때 12년 개근상 대표수상자로 단상에서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양산 날다람쥐] 어머니는 항상 뛰어다니던 어린 저를 날다람쥐라고 부르셨습니다. 천성이 그런 탓에 지금도 읽는 것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남들보다 빠릅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 30번 이상 음식을 씹으려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팀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 진행을 하다 보면 "그냥 내가 할게"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빨리해버리고 끝내는 게 마음이 편해서였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제출을 가장 빨리하는 팀에 속했습니다. 시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십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한 성격 탓에 가끔 세부적인 내용을 놓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는 일을 끝내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중요도에 따라 두세 번의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맨땅에 헤딩]

창업 동아리에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 키겠다는 열정으로 팀원을 모아 사회 공헌 스타트업을 준비했습니다.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교내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회의 도중 기존모델이 수익 창출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시 팀원들의 참여도에 대한 불만과 마감 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해당 의견을 경시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수익 창출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결국 프로젝트는 처음 의견을 제시하던 시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이 낭비되었고 팀원들도 허탈해했으며 스스로 실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를 다시 뽑았습니다. 내가 낸 아이디어라는 욕심을 버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팀원을 팀장으로 뽑고 저는 팀원으로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 타깃을 가진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출시로 창업에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맨땅에 헤딩이 되었지만, 이 일을 겪음으로써 팀보단 개인의 욕심을 중시했던 제 태도에 많은 반성을 할 수 있었고 주인의식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래 상담사 출신 공감 해결사]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에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해올 때 공감과 더불어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걱정거리가 해결되어 친구가 더 행복해졌다면 커다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과목 부장을 맡아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조율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고등학교 때는 또래 상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스스로 인간 친화적 성향을 가지고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문제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구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서 사내에서 평판이 안 좋아진다면 우선 자아 성찰을 할 것입니다. 1) 사소한 것 하나라도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한 일 있는지 생각한 후 교정하려 노력 2) 불만을 가진 직원과의 대화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했는지 확인 후 고치려는 노력, 해당 직원과 감정적 유대감 쌓기 3) 상사, 사내 상담 기관에 상담의 순으로 해결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며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호불호 갈리지 않는 신입]

입사 후 첫 한달은 사내 적응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겠습니다. 업무에 있어서는 두 번 말하게 하지 않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인수인계, 교육을 받을 때 꼼꼼히 메모하여 똑같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뒤 일주일에 한번씩 선배님들에게 다과 혹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항상 팀원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며 인사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인사 조직 분야의 커리큘럼을 따르며 이론을 학습하였지만 전공 수업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 인사직무에 올인하겠다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인사 직무 현직자와 구직자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가입해 매일매일 주요 이슈들을 알아가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이러닝을 통해 인사 노무 관리 교육을 이수하겠습니다. 외국어 공부도 성실히 해서 글로벌화에 기여하겠습니다.